

지역 소식 통

부안군, 여름철 벼 병해충
방제 선제 대응 총력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짧은 장마후 이른 무더위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상습 병해충 발생 포장을 대상으로 예찰한 결과 애멸구 발생량 급증과 이화명충 피해가 일부 확인되어 벼 병해충 선제 방제에 대응에 나섰으며 7월 8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벼 병해충 기본방제 기간을 정하여 전읍면 12,000ha 논에 선제적 병해충 차단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 벼 병해충 기본방제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5억원으로 논 전 작년에 대하여 약제를 50% 지원하고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2024년 직불제 대상 벼와 논콩 가루쌀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출수기 고온과 긴 열대야로 벼멸구 700h 논에 발생하여 선제적 방제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참가업체 모집

정읍시가 지역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실질적인 판로 개척과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5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인 '정읍형 가업식 발효산업 육성'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시는 엑스포 참가를 통해 지역 발효식품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엑스포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20개국 350개 기업이 참여하고, 총 450개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비롯해 국내외 홍보 프로그램, B2B·B2C 상담회 등 다양한 판촉 기회가 마련된다.

시는 이 가운데 7개 부스를 확보해 지역 발효식품 관련 경영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조립식 부스를 제공하고, 부스 임차비 전액(개소당 250만원)을 부담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민의 손과 발, 감사합니다”

이학수 정읍시장, 이통장연합회와 소통 간담회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이통장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9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이통장연합회 임원을 대상으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장단과 총무, 재무 등 69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시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통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무더위와 급작스러운 집중호우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민선 8기 3주년을 축하하는 띠케이크 커팅식으로 시작했다. 이어 기념촬영을 통해 더 큰 도약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나눴다.

이학수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 이 마저 닿지 못하는 곳까지 시민의 손과 발이 돼 주시는 이통장님들의 노력이 시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으름 정읍을 함께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3년간의 주요 시정 성과도 소개됐다. 시는 행정 혁신과 민생 안정,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집중하며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주력해 왔다. 특히 약 100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과 재정 효율화를 통해 각종 시민 지원 정책을 강화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일상회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이통장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정읍시, 15개 읍·면 이장단 간담회 돌입

집중호우·폭염 대비 현장 목소리 청취

정읍시가 민선8기 시정 철학인 '현장 중심 소통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15개 읍·면 이장단과의 순회 간담회를 시작했다.

시는 9일 신탄인읍을 시작으로 산외

면까지 총 15개 읍·면을 돌며 이장단과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 민원 접수가 아닌, 무더위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를



복지원금, 에너지특별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등은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이 됐고, 정읍형 공공배달망 '위메프오'는 소상공인의 수익 개선에 기여했다. 도심 교통 인프라 정비와 도시재생, 주차 공간 확충, 수소충전소·도시가스 확대 등 기반시설 개선도 탄력을 받았다.

복지 분야에서는 육아수당 확대, 주요간 진료 가능한 소아외래진료센터 개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반을 강화했다. 아울러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지역 주치의 확대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을 쏟고 있다.

통장들은 그동안의 시정 성과에 공감을 표하며, 시정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생활밀착형 정책들이 지역 현장에 제때 반영되고 있다는 반응도 있었다.

자유 발언 시간에는 각 지역의 현안과 민원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이통장들이 전달한 의견에 대해 부서별로 답변하고, 향후 시정 운영과 행정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간담회는 이통장연합회의 자체 안전 토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시는 이번 소통의 자리를 계기로 이통장들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남은 민선 8기 기간 동안에도 시민 중심 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현장 대응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이장들은 각 마을의 지형, 배수 여건, 취약지역 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행정 파트너로서, 시는 이들의 의견을 통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취약지역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길 것을 당부드린다”며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장님들의 신속한 건의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15개 읍·면 이장단 총 55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은 관련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시는 이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14개국 글로벌 사절단, 고창 방문

'2025 세계유산축전' 앞두고 20여명 다양한 문화체험 즐겨

오는 10월 열리는 '고창세계유산축전'을 앞두고 14개국 20명의 '글로벌 사절단'이 고창군을 찾아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겼다.

사절단은 지난 8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고인돌 유적지를 방문하고, 박물관 견학, 판소리 프로그램 체험 등을 진행했다.

'글로벌 사절단'은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14개국 20명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외국인 서포터즈다. 올해 세계유산축전이 열리는 제주, 경주, 순천,

고창 일원의 세계유산을 직접 탐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한 콘텐츠를 제작해 해외 각국에 소개할 예정이다.

고창세계유산축전은 오는 10월2~22일 '자연과 공존, 인류의 영원한 시간! 갯벌과 고인돌'을 주제로 고창 고인돌 유적과 갯벌에서 열린다.

고창의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개막식, 특별기획전, 유적 투어, 국제학술대회, 환경캠페인, 고인돌 세움학교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어촌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정읍시, 칠보면 석탄마을

정읍시 칠보면 석탄마을이 대통령직속 지방사태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정읍시가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게 준비한 결과물이다. 추진위원회와 주민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모신청서를 작성했고 전북특별자치도의 1차 평가와 지방사태위원회의 2차 대면평가를 통과하며 최종 선정됐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다. 시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면밀히 반영한 계획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총 15억 8000여만원(국비 10억 5100만원, 지방비 4억 1300만원, 자부담 1억 1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주택 개보수,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위생·교통환경 개선,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다양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자인 석탄마을은 슬레이트 지붕이 전체 가구의 53.1%에 달하고 노후화된 담장과 좁은 진입로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아 왔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정주환경은 물론 주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무장면 시거마을

호남방어의 요충지 무장읍성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 고창군 무장면 시거마을에 21억원을 들여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직속 지방사태위원회가 주관 2025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에 무장면 시거마을이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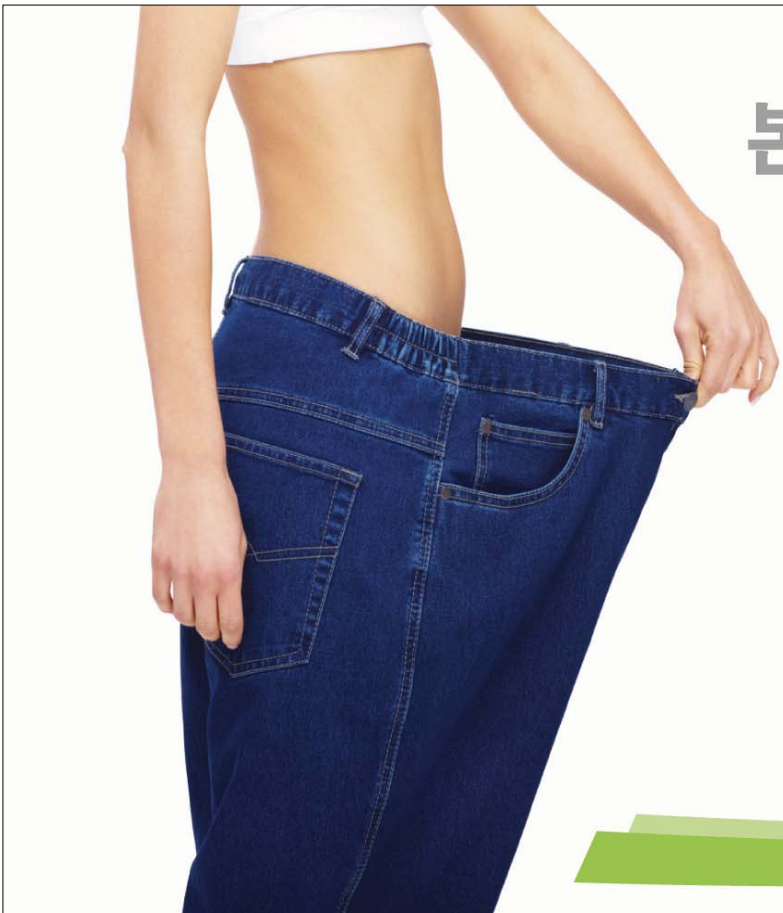
이에 따라 국비 최대 15억원 포함한 총사업비 약 21억원이 확보됐다.

시거마을은 무장장이 생기기 전에 상점이 길가에 늘어서 있었다 해서 시

거마을로 불리며 무장의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하지만 마을전체 주택 절반 이상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낡고 오래돼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마을환경개선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등 사업들이 추진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무장면 시거마을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을 조성해 주민 행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